

5월 유족 등과 함께 한 영화 '택시운전사' 시사회

“오월 광주 사실적 묘사 힌츠펠터 기자정신 빛나”

“요즘 세대 민주주의 발전과정 생각하는 계기 되길”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 특파원으로 5·18 참상을 현장에서 취재해 전 세계에 알린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펠터의 취재기를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가 정식 개봉(8월2일) 전 지난 17일 광주에서 5·18 유족 등을 만져 만났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광주트라우마센터 등을 초청해 비공식 시사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재 재단 상임이사는 “화려한 휴가”와 “26년”처럼 광주의 5월을 다뤄 성공한 여러 상업 영화처럼 ‘택시운전사’도 흥행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정춘식 5·18 유족회장은 “5·18을 다룬던 기존 영화들에 비해 1980년 광주 오월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데 노력한 모습이 엿보였다”며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힌츠펠터의 취재 행적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5·18기념재단 5·18연구소 소속 차종수 연구사는 “힌츠펠터의 기자정신은 광주

항쟁을 전세계에 알리고 진실규명을 앞당겼다고 생각한다”며 “이 영화가 요즘 세대들에게 광주항쟁을 알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생각해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화에서 힌츠펠터 역을 맡은 토마스 크레취만(55)은 오는 23일 내한, 25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리는 ‘택시운전사’ VIP 시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토마스 크레취만은 ‘피아니스트’부터 ‘작전명 발키리’, ‘킹콩’,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 등에 출연한 독일 유명배우다.

영화 ‘택시운전사’는 이방인의 시선에서 1980년 5월 광주를 그렸다.

택시기사 만섭(송강호)이 독일 기자(토마스 크레취만)를 태우고 광주로 향하는 이야기는 지난해 타계한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펠터의 5·18 취재기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 일부는 ‘광주에 묻히고 싶다’던 유자에 따라 망월동 5·18 구묘역에 안치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도전정신·뚝심으로 ‘글로벌 기업’ 만든다



조석래 前 효성 회장의
아름다운 퇴진 <상>

국내 첫 스파텍스...중전기·산업기계 국산화 성공 신소재 탄소섬유 개발...세계 첫 ‘폴리케톤’ 상용화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경영혁신의 성공 사례로

조석래(82) 전 효성 회장이 효성그룹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경영자 후배들의 귀감이 된 조 전 회장의 ‘36년 경영 외길’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 전 회장은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흥제 회장의 장남으로 1935년 11월 경남 함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경고를 졸업하자마자 유학길에 올라 일본 와세다대학교 이공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 공과대학교에서 화학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학도의 꼼꼼함으로 효성을 글로벌 그룹으로...> 공학도 출신인 조 전 회장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만큼 ‘도전적인 경영인’으로 꼽힌다. 1966년 아버지인 조흥제 선대 회장의 부름을 받고 처음 효성에 입사했을 때 그의 나이는 31세였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 남는 진정한 경쟁력은 바로 기술력”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효성과 우리나라 산

업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분야에 매진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 전 회장은 동양나이론 울산공장을 건축하고 1973년에 동양폴리에스터를 설립한다. 그는 1970년대 들어 당시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에 부응해 1975년 한영중공업을 인수해 효성중공업을 출범시켜 중전기와 산업기계의 국산화에 성공하고 대량생산에 들어갔다.

효성 하면 ‘국내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오는 이유도 그것이다. 효성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파텍스는 그의 첫 작품으로 꼽힌다.

효성은 1990년대 독자기술로 스파텍스 개발에 성공했고 2010년부터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소재분야에서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연구개발 주력...위기를 기회로 바꾼 ‘뚝심’ 기업인=> 지난 60년 효성 역사



2005년 4월 중국 칭다오 스틸코드 공장을 방문한 조 전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현장에서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효성그룹 제공>

안에는 그늘도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조 전 회장은 우량 계열사였던 효성BASF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중공업 부문의 효성 ABB를 매각했다. 동시에 효성T&C와 효성생활산업, 효성중공업, 효성물산 등 주력 4개사를 (주)효성으로 합병했다. 조 전 회장의 ‘뚝심’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2000년대초 주요 생산 기지였던 중국에서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자 조 전 회장은 ‘글로벌 생산 체인’ 전략을 펼쳐 위기를 극복했다.

당시 그는 스파텍스와 타이어코드 등 주력 제품의 핵심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

로 낙점하고 2007년 신공장 건설에 나섰다. 이들 공장은 현재 효성이 세계 1위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와함께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새로운 신소재 개발에 도전하라”는 조 전 회장 특명에 따라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탄소섬유를 개발, 2013년 세계 최초로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인 ‘폴리케톤’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처럼 효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 전 회장의 공학도다운 꼼꼼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에 北 무반응

국방부 “조만간 반응 올 것”

“입장정리 시간 필요” 관측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의에 18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아직 북한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북한 매체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직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상군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직 북한에서 반응은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전날 군사회담에 대해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각각 회신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이후 모든 남북 간 통신 채널을 단절한 상태에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힐 가

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남북관계가 단절됐던 지난해 5월에도 군 통신선을 갑자기 열어서 회담을 하자고 제안해 온 적이 있다”면서 “(장관 이) 통신선을 복구하고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으나 북한도 우리 취지를 잘 알기에 조만간 반응을 보내오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제안에 답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더 많다. 입장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데다 북한은 과거 회담 개최 여부를 놓고도 ‘기싸움’을 벌이며 최대한 늦게 답을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우리 제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제안을 그대로 받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급을 높이면, 의제 폭을 넓히든 수정 제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수원 노조,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배임·손배 소송 등도 검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한수원 노조 김병기 위원장은 1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늦어도 19일, 경주지방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런 법정 투쟁과 함께 이사회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 주민과 협력업체와 같이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노조와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원자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 14일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와 원전무효”라고 비판했다. 또, 신고리 5·6

호기 영구중단 시 매출 비용과 위약금, 관련 업체의 파산 등으로 5조~6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중단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 손실 비용 1000억원을 공론화 기간 3달 동안 매달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경훈·이재이 의원이 공개한 ‘7월14일 한수원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협력사 손실비용) 1000억원 집행은 언제 하는 것이냐”는 A 의사의 질문에 한수원 사업분야 실무 책임인 B 이사가 “계약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건설시공현장 공사 경우 매달 공정에 따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 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에는 자재 보관, 시설물 유지,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한국 김, 아시아 표준됐다 해조류 세계 최초 선정

우리나라 김이 아시아 지역의 김 표준으로 채택됐다. 해조류 가운데 국제규격으로 선정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해양수산부는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코덱스)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 규격안’이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규격인 코덱스 규격은 187개 회원국의 식품 기준이다. 국제교역을 할 때 발생하는 분쟁 해결의 기

준이 된다. 코덱스 규격 중 해조류 관련 규격은 아직 채택된 사례가 없다. 김 제품 규격안이 사상 첫 해조류 관련 국제규격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등 3종류에 관한 것이다.

주요인원 원초와 파래, 갈매, 메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선택성 원료로 사용하는 우리나라 김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규격안에는 조미김 등 유행별 제품 정의·제조방법, 필수 성분·주요 품질요소,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광주시 5급 이하 전보인사

광주시가 18일 5급 이하 전보인사(21일자)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시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 미래먹거리 창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미래산업, 국제협력, 공공광 이전, 복지건강 등 주요 현안업무 추진부서와 전문

분야에 인재를 전진 배치했다.

<명단 22명>

또 필수보직기간(전보제기간)을 준수하고 근무 희망부서, 실·국장 추천, 보직이력, 개인별 전문 분야 등을 종합 분석해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상황 전보를 원칙으로 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오광복기자 kroh@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웅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1,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웅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복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원로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부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방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